

교회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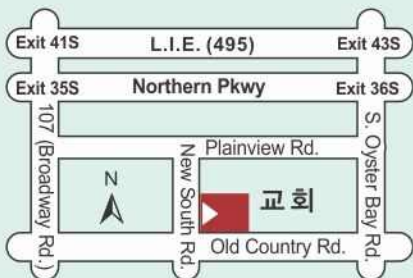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정기모임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1 부 예 배 오전 7:30	본 당
	2 부 예 배 오전 9:00	본 당
	3 부 예 배 오전 11:00	본 당
	영 어 예 배 오후 1:00	본 당
	주 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후 8:30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월~토)	본 당
목 장 모 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 자 훈 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 일 학 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교회 오시는 길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 예일 장로 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예수님 제일이신 교회”



담임목사 김 중 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C) Fax (516)938-3824
www.yalechurch.org

Vision 2021 - 헬로십 마치

예 배 시 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 도 자	김중훈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다 같 이		
찬 송 Hymn	279장, 354장		
기 도 Prayer	강철순집사	유학준장로	윤희주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사(Isa)40:1-11, 27-31		
찬 양 Anthem	예 일 관 악 단	글 로 리 아	할 렐 루 야
말 씬 Sermon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김중훈목사		
찬 송 Hymn	630장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찬 송 Hymn	635장		
*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중훈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Please be standing)

*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셀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기도	1부 전용수집사	2부 김근태장로	3부 정수영장로
방 송 설 교	KRB FM87.7(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Cablevision Ch.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7:00-7:30)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SN(www.csn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2. 교회학교/목장/선교회/사역부서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3. 환우, 선교사, 선교지, 방송선교를 위해
4. 기쁨과 감사함으로 리오프닝을 맞이하게

사도행전의 두 가지 큰 사건은 오순절 성령강림과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 기독교가 유대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반 이상이 바울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13-28장).

1. 바울

그는 스스로 변했나? 아니면 강권적으로 붙잡혔나? 사울(바울이 되기 전의 이름)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신 21:23)을 믿고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열정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 있다는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오히려 그가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의 서신에서 이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엡 1:23; 골 1:18).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고전 15:10).

그렇다면 그는 붙잡혀서 할 수 없이 수동적인 삶을 살았나 하는 질문입니다. 별 받을까 무서워서 질질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담대히 잡힌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빌 3:12-14). 이게 신앙입니다.

2. 아나니아

환상 중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를 박해하기 위해 온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이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기 위해 두 사람에게 똑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택한 그릇’이라는 말이 눈에 띄니다. 오늘 내가 있음은 과거에 나의 삶을 통해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니다.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임금과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고, 박해를 했으니 박해를 받아도 억울하지 않는 열심의 사람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세요. 오늘은 위한 은혜가 아니었나요?

3. 신앙 공동체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수지간입니다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형제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비늘은 내가 가지고 살아 왔던 가치관과 기준입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 예수께서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를 낮게 해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것이었습니다(사 53:5). 전에는 원수처럼 보였던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 예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형제자매입니다. 이런 눈으로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예배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복음을 위한 택한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장이야기

예찬목장

Covid-19 팬데믹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주일 오후에 목원 가정에서 목장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교회 친교실에서 대면 목장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목장예배를 드리게 되니 기쁨이 넘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목장예배는 특히 팬데믹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학균&배명선 집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대접하셔서 오랜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목원들의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 충분한 목장예배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실 뿐만 아니라 이날 배명선 집사님은 지난 팬데믹 동안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간증하였는데, 모든 목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팬데믹이 모두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계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은 어느 목원에게 함께 하신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를 하며, 다음 목장예배를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예배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리라"

최형희집사(벨엘목장)

치매판정을 받고 한국의 요양원에 계셨던 친정어머니가 2월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86세인데다가 폐렴유종을 앓으셨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이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다. 그러는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13시간 동안의 비행기는 나의 기도처가 되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셔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팬데믹은 가족들조차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와 함께 하고 계셨다. 어머니에게 코로나바이러스는 치명적이라 염려하며 기도했는데, 최우선적으로 격리 치료받게 해 주셨고, 또한 치매환자인 어머니에게 천사 같은 의료진들을 보내주셔서 치료받게 해 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퇴원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화와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귀국한 딸들은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의 손에 닿고 많은 성경책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성경책이었다. "엄마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새벽 1시에 앰블란스에 실려 가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성경책을 꼭 쥐고 응급실로 들어가셨다고 한다. 5분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시고, 그래서 수없이 질문을 하시는 어머니시다. 그런 어머니가 성경책을 생명 줄로 여기고 응급실까지 가지고 가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딸들에게 "엄마 지금 눈감아도, 눈 뜨면 천국이 다~!" 라고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세계적으로 예수이름 드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신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겨 오신 공은 믿음과 순전한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신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 것이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해주신 벨엘목장 식구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8월 4일

기 도 양명옥권사
말 씘 김중훈목사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 씘 김중훈목사

주여 새벽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봉사위원

다음 주 봉헌/안내위원 안내

8월 8일 주일예배	봉헌위원	안내위원
1부	전용수집사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2부	김근태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3부	정수영장로	바나바사역부 & 예배부
8월 11일 수요일기도	김순영권사	예배부

교회소식

예배

1.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2. 예배시간 안내: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온라인예배는 2부, 3부에만 있습니다. 온라인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1. **예배 및 헌금 안내:** 뉴욕 주 성인의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서 6/27일부터 본당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① 1부 예배는 본당(현장)예배로 드려집니다(온라인 서비스 없음).
- ② 2, 3부 예배 및 CCM 예배는 본당 예배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③ 수요예배와 새벽예배는 모두에게 오픈하고, 온라인예배 병행합니다.
- ④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⑤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우편주소: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2. 정기당회: 오늘 오후 12시 30분, CCM실
3. 7월 성경통독 및 다독자 보고: 통독/5명, 다독/115명
*각 목장은 통독&다독자 선물을 친교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장년교육사역부).
4. 찬양위원회 BBQ 친교: 8/8 주일 3부 예배 후
5. 주차 안내: 향촌직은 16번지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과 친교(식사)기도
 - 강 단 꽃: 황병환집사(생일)
 - 사랑의식탁:

교우동정

- 한국방문: 이경화집사

행사예고

- 7/5-8/13	예일 여름학교(Yale Disciple Land Summer School)
- 7/12-8/13	예일 유년부 어린이를 위한 무료여름프로그램 (Yale Kids Afternoon Meeting)
- 8/15	장로고시(김두성, 전용수, 김동환)
- 8/15-19	중고등부 신앙수련회

QT본문

요일	일(8/1)	월(2)	화(3)	수(4)	목(5)	금(6)	토(7)
본문	사(Isa) 52:13-53:12	사(Isa) 54:1-17	사(Isa) 55:1-13	사(Isa) 56:1-8	사(Isa) 56:9-57:13	사(Isa) 57:14-21	사(Isa) 58:1-14

목양 칼럼

2021. 31. 돌아갈 곳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돌아 갈 곳이 없으면 방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CTS 기독교 방송국 감경철 회장이 뉴욕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함께 CTS 뉴욕 방송을 위해 섬겨 오신 분들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가 복음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복음의 다음 주자인 차세대대를 위한 신앙전수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 중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출산율이 한 명도 못 되는 0.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회도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성도수가 약 천만이라고 하지만 10년 뒤에는 약 300만으로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 출산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한 마디로 교육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녀 한 명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학교 교육이 기독교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기에 자녀들을 마땅히 보낼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차세대를 양육하는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한 교회가 한 대안학교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피부에 가까이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간담회 내내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은 가능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의 어느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더니 7명까지 자녀를 낳은 가정이 있어서 교회학교가 부흥했다는 사례를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둘째,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사랑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셋째, 대안학교를 우리 교회에 시작하는 일입니다. 교회 건물을 배나 넓혀 주셨는데 사명도 그 만큼 감당하라는 의미인 줄 압니다. 이미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널서리(Nursery)를 추진하는 것을 당회에서 기쁘게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계속해서 그 위의 학년으로 대안학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를 읽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